

제 1 교시

현대시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
 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 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체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붙어서 경대 위에 놓습니다그러. ㉣시름없이 꽃
 을 주워 서 입술에 대고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
 다. 꽃은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 한용운, 「해당화」

(나)
 ㉠감나무쫄 되랴, /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 가는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이것이 제대로 번을 떼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로 번어 가서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그러나 그 사람이 /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느껴운 열매가 될는지 몰라!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전생(前生)의 ㉢내 전(全) 설움이요 전(全) 소망인 것을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그것을 몰라, 그것을 몰라!

- 박재삼, 「한(恨)」

1.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도치법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경어체를 구사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건넨 화자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당신'이 화자에게 맡겨 둔 사물이고, ㉣은 '그 사람'이 화자에게 건넨 선물이다.
 - ② ㉠은 화자가 '당신'에 대해 가진 의구심을 드러내고, ㉣은 화자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신뢰를 가리킨다.
 - ③ ㉠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할 화자의 의지를 상징하고, ㉣은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의미한다.
 - ④ ㉠은 시간과 관련하여 '당신'이 화자에게 했던 약속을 환기하고, ㉣은 공간을 초월하여 '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보여 준다.
 - ⑤ ㉠은 화자에게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여 점진적인 성숙으로 이어지게 하고, ㉣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화자의 돌발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시를 읽을 때도 수식어, 즉 관형어나 부사어의 의미 및 기능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효과적인 독법(讀法)이 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관형어나 부사어에는 그것이 수식하는 다양한 존재, 시·공간이나 상황, 동작이나 상태 등에 대한 화자의 관점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 ① ㉡는 '말하기로'를 수식하는 말로,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이들과 갈등을 겪는 상황을 지시하고 있군.
- ② ㉢는 '봄바람'을 수식하는 말로, 외면하고 싶었던 시간의 경과를 인지시킨 존재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군.
- ③ ㉣는 '주워서'나 '대고'를 수식하는 말로, 자신의 간절한 기다림이 허망해져 버린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서글픔을 반영하고 있군.
- ④ ㉡는 '사람'을 수식하는 말로, 대상에 대해 화자가 지닌 연모의 감정을 짐작하게 해 주고 있군.
- ⑤ ㉢는 '설움'을 수식하는 말로, 대상으로 인해 갖게 된 한스러움이 화자의 삶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짐작하게 해 주고 있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짧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아늑한 이 향구인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발에 익은 뿔부리** 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사랑하던 사람들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 짓는다
앞 대일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짧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나)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고
 뭐한다고. 산 아래 /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한다고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 산그늘도 다 도망가 불고
 산 아래 집 뒤편 /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뭘 헛짓이냐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냐
 뭘 소용이냐.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한다고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 가고 / 저 달 금방 저 불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터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 발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한다고, 뭘 소용이냐.
 - 김용택, 「들국」

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영탄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대구의 방식을 통해 긍정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는 ‘안’과 ‘밖’의 대립 구조가 드러난다. 화자가 아직 떠나지 않은 삶의 터전이 ‘안’, 장차 떠나서 향하려는 외부가 ‘밖’이 된다. 삶의 터전에서 느끼는 상실감과 외부 공간으로 떠나려는 선택은 화자가 처한 일제 강점기 현실에 대한 고뇌를 드러낸다.

- ① ‘나 두 야 간다’를 통해 ‘안’의 공간을 떠나려는 사람이 화자만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이 짧은 나이’는 외부 공간으로 떠나고자 하는 화자의 선택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는군.
- ③ ‘발에 익은 뿔부리’는 화자의 삶의 터전인 ‘안’의 공간에 해당하며 화자가 쉽게 떠나지 못하는 미련과 아쉬움을 불러일으키는군.
- ④ ‘쫓겨 가는 마음’은 일제 강점기 현실로 인해 ‘밖’의 공간으로 떠나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군.
- ⑤ ‘앞 대일 언덕’은 화자가 아직 떠나지 않은 ‘안’의 공간으로, 일제 강점기 현실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투영되어 있군.

6.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단풍’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대상이지만 고독한 화자에게는 별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물빛’과 ‘허연 서리’는 모두 심리적 고통을 겪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초생달’은 사랑하는 입을 떠올리게 하고, ‘하얀 들국’은 여전히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마른 지푸라기’는 기다림의 고통을 겪는 화자의 내면 상태를 빗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어둠 천지’는 입의 부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절정(絶頂)에 가까울수록 삐죽채꽃 키가 점점 소모(消耗)된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가웃 내다본다. **화문(花紋)처럼 판(版) 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삐죽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팔월 한철엔 **홀어진 성신(星辰)처럼 난만(爛漫)하다.** 산 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삐죽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 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2

암고란(巖古蘭), 환약(丸藥)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아 일어섰다.

3

백화(白樺) 옆에서 백화가 측루(髑髏)*가 되기까지 산다. 내가 죽어 백화처럼 흰 것이 승업지* 않다.

4

귀신도 쓸쓸하여 살지 않는 한 모롱이, 도체비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린다.

5

바야흐로 해발 육천 척 위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여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 소를, 송아지가 어미 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6

첫 새끼를 낳느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열겔에 산길 백리를 돌아 서귀포로 돌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윈 송아지는 움매에 움매에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구 매어 달렸다.** 우리 새끼들도 **모색(毛色)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나는 울었다.

7

풍란(風蘭)이 풍기는 향기, 피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①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좌아 좌아 솔** 소리, 물푸레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칩넌출 괴여간 **흰 돌바기* 고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점말이 피하지 않는다.

8

고비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샷갓나물 대풀 석용(石葺) 별과 같은 방울을 달은 고산 식물을 새기며 취(醉)하며

자며 한다. 백록담 조찰한 물을 그리어 산맥 위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늦녘***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붙인 채로 살이 벗는다.

9

가재도 괴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不具)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 온 **실구름 일말(一抹)에도** 백록담은 **호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절 포긴 백록담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다 기도(祈禱)조차 잊었**더니라.

- 정지용, 「백록담」

*측루: 해골. *승업지: 말이나 행동 따위가 불쾌할 정도로 흉하지.

*흰 돌바기: 흰 돌 박힌.

*늦녘: 빗발이 굵고 곧게 뻗치며 내리쏟아지는 모양.

(나)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날더러는 삼이나 들라 하고
쭉굴형에 박혀
쭉이 되라 한다
늘퍼진 날 산은
㉠쭉국새 울고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는
쭉국새마냥 올라 하고
흙 파먹다 죽은 아버
뽕주림에 지쳐
쭉굴형에 나자빠진
에미처럼 올라 한다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 정희성, 「저 산이 날더러 - 목월 시 운을 빌려」

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설의법을 통해, (나)는 영탄법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나)는 미래를 예측하며 주체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하강적 이미지로, (나)는 상승적 이미지로 계절의 변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④ (가)는 동일한 시행의 반복으로, (나)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⑤ (가)는 시행을 나누지 않는 산문 형식으로, (나)는 수미상관의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흥취를 북돋우는 역할을 한다.
- ② ㉠과 ㉡은 모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된 존재이다.
- ③ ㉠은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은 고조되었던 분위기를 이완한다.
- ④ ㉠은 화자가 처한 상황의 분위기를 돋우고, ㉡은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심화한다.
- ⑤ ㉠은 자연의 섭리를 부각하는 존재이고, ㉡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백록담」에는 작가가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에 다녀왔던 경험이 드러나 있다. 비유적 표현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등반 과정이나 한라산의 자연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한라산의 정상인 백록담의 맑고 깨끗한 정경을 묘사한 후, 정상에서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① ‘화문처럼 판 박힌다.’, ‘흠어진 성신처럼 난만하다.’ 등은 한라산 등반 과정에서 화자가 바라본 뺨꽃채꽃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군.
- ② ‘풍란이 풍기는 향기’, ‘쇠아 쇠아 술 소리’, ‘흰 돌바기 고부랑길’ 등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한라산의 자연물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군.
- ③ ‘어미를 여윈 송아지’가 ‘마구 매어 달’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새끼들도 모색이 다른 어미한테 맡길 것’을 떠올리는 것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대 상황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군.
- ④ ‘가재도 괴지 않는’ ‘푸른 물’이 ‘실구름 일말에도’ ‘호리운다’는 것은 백록담이 작은 구름에도 흐려질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곳을 강조한 것이군.
- ⑤ ‘나는 깨다 즐다 기도조차 잊었’다는 것은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혼탁한 세상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군.

10.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 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텃마루
 석삼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목계 장터」

- ① (나)는 <보기>와 달리 물질적 궁핍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가족의 비참하고 치열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보기>는 (나)와 달리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달픈 삶에 대한 애환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와 <보기>는 모두 특정한 조사나 어미의 반복 및 시행이나 시구의 대구를 통해 시적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와 <보기>는 모두 누군가가 화자에게 하는 말을 전달하는 형식의 말투를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나 상황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삶을 자연적 소재에 빗대어 소재의 속성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 위에 / 어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호(壕) 안에는 /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말이 숫제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진작 죽었더라면 / 이런 꼴 / 저런 꼴
다 보지 않았으련만……

글쎄 할머니 / 그걸 어찌란 말씀이셔요.
숫제 말이 적어지신 /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인젠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
- 박남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나)
[A] 여명(黎明)의 종이 울린다.
새벽 별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같이 산다.
닭이 운다. 개가 짖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B] 오는 사람이 내게로 오고
가는 사람이 내게서 간다.

[C] 아픔에 하늘이 무너졌다.
깨진 하늘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빛은 장마에
넘쳐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다.

[D] 나는 무너지는 독에 혼자 섰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生)의 감각(感覺)을 흔들어 주었다.
- 김광섭, 「생의 감각」

11. ㉠과 ㉡을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 ㉡은 불안정한 현실에서 화자가 낙관적 태도로 일관할 수 있게 한다.
 - ㉠과 ㉡은 자연을 파괴하는 현대 문명과 대비되어 생명의 고귀함을 상징한다.
 - ㉠과 ㉡은 불행한 현실에 처한 존재에게 생명에 대한 희망

- 과 의지를 갖게 한다.
- ㉠은 생명이 파괴된 현실을 상징하고, ㉡은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모습을 상징한다.
 - ㉠은 화자가 일체감을 느끼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자신과 괴리된 존재로 인식하는 대상이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6·25 전쟁은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와 극단적인 이념 대립 속에서 같은 민족끼리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로 인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준 민족적 비극이었다. 전쟁 이후 이와 같은 민족적 비극을 전쟁 체험을 기반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경향을 지닌 문학 작품들은 전쟁에서 비롯된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그리면서, 동시에 그로 인한 상처를 휴머니즘에 바탕을 두고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가혹한 상황을 초월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박남수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또한 이런 경향을 지닌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방공호’는 이 시가 전쟁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인 것임을 짐작하게 해 주는군.
- ‘이런 꼴 / 저런 꼴’은 전쟁으로 인해 민족이 겪은 비극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군.
- ‘말이 숫제 적어지신’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에서 비롯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군.
- ‘그걸 어찌란 말씀이셔요.’는 전쟁의 상처를 휴머니즘으로 극복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혹한 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겠군.

13. [A]~[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는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상황이 주는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B]는 [A]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상을 화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냄으로써 화자를 중심으로 한 세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C]는 [A]에 나타난 희망적인 분위기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암담한 분위기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C]에서 [D]로의 상황적 변화를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D]는 공간적 배경과 그곳에서 관찰한 대상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과 그것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내 마음은 한 쪽의 기

보는 이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더니라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견디지 못해

눈 오는 네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마음의 기는 이제금

㉡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 가는

그 일이란다

㉢ 황제의 항서(降書)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가

맑게 가라앉은 ㉣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벗은 없을까

내 마음은 한 쪽의 기

보는 이 없는 시공에서

㉤ 때로 울고 때로 기도드린다

- 김남조, 「정념의 기(旗)」

(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 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 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 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14. (가)와 (나) 화자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풍자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와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리고 있다.
- ④ 사물이 지닌 인간적 덕성에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타인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15. (가)와 (나)의 시상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화자의 심리적 추이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화자의 행동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내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동일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계절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물에 대한 시선 이동을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는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화자가 추구하는 내면의 상태를 보여 주고 있고, (나)는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내면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공간의 풍경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고, (나)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의 역전을 통해 화자의 심리 변화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1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마음속 상태를 사물을 통해 구체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② ㉡: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초탈하고자 하는 정서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마음속으로 동경하는 바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 행동의 나열을 통해 화자가 염원하는 바에 대한 간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은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이미 욕망한 것을 자신도 향유하려는 바람에서 타인의 욕망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때 욕망은 주체와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타자, 이른바 욕망의 중개자에 의해 중개된다. 예를 들어 학업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A와 B 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중 A가 잘 가르치기로 소문난 학원에 등록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B가 부모님에게 자신도 그 학원에 등록해 달라고 졸랐다고 한다. 이때 B는 순수하게 자신의 학업 향상을 위해 학원 등록을 원했다기보다는 단지 경쟁자인 A가 그 학원에 등록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원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욕망의 주체는 B이고, 욕망의 대상은 학원, 그리고 욕망의 중개자는 A가 된다. 지라르의 관점에서 이런 관계를 통해 추구되는 욕망은 결국 허영심일 뿐이다. 또한 이런 모방된 욕망은 중개자에 대한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고, 이러한 경쟁심이 과열될 때 주체와 중개자 사이의 차이가 소멸되면서 개인의 정체성이 약화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① 화자가 세운 ‘너무나 많은 공장’은 화자가 추구했던 수많은 욕망들을 표현한 것일 수 있겠군.
- ② 화자가 가진 것이 ‘탄식밖에 없’게 된 것은 자신이 욕망한 것이 허영심이었기 때문일 수 있겠군.
- ③ 화자를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화자가 욕망의 중개자임을 알았기 때문일 수 있겠군.
- ④ 화자가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군.
- ⑤ 화자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내면의 욕망을 주체적으로 자각하지 못하여 정체성이 약화된 상황에 대한 자각일 수 있겠군.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껌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껌데기는 가라.

껌데기는 가라.
 동학년 곱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껌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 껌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

껌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신동엽, 「껌데기는 가라」

(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18.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단호한 의지와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1, 2연과 3, 4연의 내용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시상의 전환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가)는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시어 속에 내재된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과거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깨달음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특정 대상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그 대상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껌데기는 가라」는 4·19 혁명의 정신이 퇴색해 가는 현실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1960년대 참여 문학의 대표작이다. 작가는 4·19 혁명과 동학 농민 운동의 정신이 회복되길 바라는 소망과 이러한 정신을 훼손하는 모든 불의와 거짓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을 강렬하게 외치고 있다. 또한 평화롭고 순결했던 우리 민족의 삶을 되찾길 바라는 기원을 형상화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분단된 민족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표출하고 있다.

- ① 4·19 혁명을 상징하는 '사월'과 동학 농민 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뜻하는 '동학년'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4·19 혁명과 동학 농민 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모든 불의와 거짓을 함축하는 '껍데기'는 화자가 사라지길 바라는 대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군.
- ③ '동학년'의 '그 아우성만 살고'에서 '사월'의 '알맹이'를 회복하려면 동학 농민 운동의 정신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화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군.
- ④ '아사달'과 '아사녀'의 '맛절'에서 평화롭고 순결한 우리 민족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느낄 수 있군.
- ⑤ '한라에서 백두까지' '흙 가슴만 남길' 바라는 화자의 마음에서 분단된 민족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짐작할 수 있군.

20.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시인이 못 됨으로'라고 화자가 자신을 평가한 것은 시인으로서의 화자의 성찰적 자세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 서울역 앞', '남대문' 등을 통해 화자가 이동한 공간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사람들이 오가는 '시장'에서 '생각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는 자신이 구하던 답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찾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화자는 진정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언급한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인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알과',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그런 사람들'의 삶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나)

그대 아는가 / 나의 등판을
 어깨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 시퍼런 **칼자욱**을 아는가

질주하는 전율과 / 전율 끝에 **단말마***를 꿈꾸는
 벼랑의 직립 / 그 위에 다시 벼랑은 솟는다

그대 아는가 / 석탄기의 종말을
 그때 하늘 높이 날으던
 한 마리 **장수잡자리의 추락(墜落)**을

나의 자량은 **자멸(自滅)**이다 / 무수한 복안(複眼)들이
 그 무수한 수정체(水晶體)가 한꺼번에
박살 나는 맹목(盲目)의 물보라

그대 아는가 /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 / 2억 년 묵은 이 **칼자욱**을 아는가
 - 이형기, 「폭포」

*단말마: '임종(臨終)'을 달리 이르는 말. 숨이 끊어질 때의 모진 고통.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대립적인 색채어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의문형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통해 외부 세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⑤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2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서운 기색도 없이’는 거침없는 폭포의 모습을 부각하여 두려움 없는 강인한 정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② ‘규정할 수 없는’은 고정된 형태를 지니지 않은 폭포의 모습을 통해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③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설 사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흐르는 폭포의 모습을 통해 변함없는 일관된 정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④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은 ‘밤’의 상황을 구체화하여 폭포가 내는 소리에 더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주는 표현이다.
- ⑤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는 빠르게 낙하하는 폭포의 모습을 통해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2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인은 대상이 지닌 속성에 주목하여 그 대상을 낯익은 이미지로 묘사하기도 하지만, 대상의 속성과 동떨어진 낯선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에 따라 동일한 대상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과정에서 대상의 속성에서 얻게 된 깨달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낯설게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의식을 드러내거나 지적 상황에서 유발되는 정서 등을 부각하기도 한다.

- ① (가)에서는 폭포가 지닌 ‘떨어’지는 속성에 주목하여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군.
- ② (가)에서는 ‘곧은 소리를 내’는 폭포를 통해 깨달은 ‘고매한 정신’에 대해 전달하고 있군.
- ③ (나)에서는 폭포의 모습을 ‘장수잠자리의 추락’이라는 낯선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④ (나)에서는 ‘그대’가 폭포에 가하는 ‘칼자옥’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군.
- ⑤ (나)에서는 ‘맹목의 물보라’로 ‘박살 나’며 ‘자멸’하는 폭포를 통해 ‘단말마’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꿉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뽕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붙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

(나)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재곤(在坤)’이라는 이름을 가진 **얕은뱅이** 사내가 있었습니다. 성한 두 손으로 멍석도 절고 광주리도 절었지마는, 그것만으론 제 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을 얕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재곤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다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 인정은 바닥난 것이니, 하늘의 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러하여서, 그의 세끼니의 밥과 치위*를 견딜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보아 주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술년이라던가 을해년의 새 무궁화 피기 시작하는 어느 아침 끼니부터는 재곤이의 모양은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일절 보이지 않게 되고, 한 마리 거북이가 기어 다니듯 하던 살았을 때의 그 무겁디무거운 모습만이 산 채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마다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줄 천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 바뀌어도 천벌은 이 마을에 내리지 않고, 농사도 딴 마을만큼은 제대로 되어, ㉤**신선도(神仙道)**에도 약간 알음이 있다는 좋은 흰 수염의 조 선달 영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곤이는 생긴 게 꼭 거북이같이 안 생겼던가. 거북이도 학이나 마찬가지로 목숨이 천 년은 된다

고 하네. 그러니, 그 긴 목숨을 여기서 다 견디기는 너무나 답답하여서 날개 돋아나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간 거여.....”

그래 “재곤이는 우리들이 미안해서 모가지에 연자 맷돌을 단단히 매어 달고 아마 어디 깊은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는 거라”던 마을 사람들도 “하여간 죽은 모양을 우리에게 보인 일이 없으니 조 선달 영감님 말씀이 마음적으로야 불가불 옳기사 옳다”고 하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두루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서만 있는 그 재곤이의 거북이 모양 양쪽 겨드랑에 두 개씩의 날개들을 안 달아 줄 수는 없었습니다.

- 서정주, 「신선 재곤이」

2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화자가 이동하는 공간을 따라가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나)는 특정 인물의 삶과 죽음을 산문시의 형식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 ③ (가)는 화자의 상황 인식을 통해, (나)는 인물들의 말을 통해 시적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과거를 회상하는 한 인물을 통해 다른 인물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5. <보기>는 (가)를 감상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농무’는 본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며 농민들이 신명 나게 어울리는 행위였다. 그러나 작품이 창작된 1960~70년대의 상황, 즉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이촌향도 현상,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당대 농촌의 현실 상황과 관련지으며 작품 속에서 농무는 또 다른 맥락적 의미를 생성하고 있다.

ㄴ. 홍명희는 「임걱정」에서 임걱정, 서림 등을 등장시켜 과거 민중의 생명력과 저항 의식을 역동적으로 그렸다.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백정 출신인 임걱정은 탐관오리의 재물을 빼앗아 빈민에게 나누어 주는 등의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인물이고, 아전 출신인 서림은 임걱정의 참모였으나, 관군에 잡힌 후 결국에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해 임걱정을 배신한 인물이다.

- ① ㄱ을 참고하면, 농무와 ‘텃 빈 운동장’을 연관 지은 것은 풍요와 안녕에 대한 기원을 농무에담지 못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부각하는 것 같아.

- ② ㄱ을 참고하면, ‘쫓무래기들’만 따라붙는 상황을 제시한 것은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 버린 현실을 암묵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
- ③ ㄱ을 참고하면, ‘비룻값’에 대한 농민의 생각을 언급한 것은 농사를 통해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당대 농촌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 같아.
- ④ ㄴ을 참고하면, 농민의 모습을 ‘꺼정이’에 대응시킨 것은 당대 현실에 대한 민중의 울분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같아.
- ⑤ ㄴ을 참고하면, ‘서림이’처럼 밝게 웃는 농민의 모습을 제시한 것은 민중의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담아 낸 것 같아.

26.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생: 이제 발표를 정리할까 합니다. 저는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 물결 속에서 시인이 『질마재신화』를 노래했음에 주목했습니다. 자연의 상실, 공동체의 파괴, 인간 존엄의 추락, 유구히 흐르던 전통 의식의 단절 등과 같은 산업화의 폐해 속에서 시인은 그만의 신화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일상 속 비천한 인물들의 삶을 포착하고 이리저리러한 그들의 삶을 그의 시편들 속에서 신화적 단계로 끌어올림으로써 ‘신성하다’는 말이 환기하는 엄숙함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인의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전통성을 회복하고, 이와 더불어 오래된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을 현재의 삶에서 구현하고픈 열망을 드러내고자 한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 ① ‘얕은뱅이’인 재곤이를 시적 대상으로 삼은 것에서 신성함을 과는 거리가 있는 일상 속 비천한인물을 포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② 재곤이에게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를 준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공동체가 파괴되기 전의 전통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재곤이가 사라진 것을 마을의 인정이 바닥났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공동체 지속의 비밀인 인정을 형상화하려 한 것을 엿볼 수 있군.
- ④ 재곤이가 하늘로 ‘신선살이’를 하러 갔다고 믿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비천한 인물이 신화적 단계로 끌어올려졌음을 엿볼 수 있군.
- ⑤ 재곤이가 미안해서 바다에 잠겨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산업화로 인해 인간의 존엄이 추락한 현실을 엿볼 수 있군

2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중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함께 전달하고 있다.
- ② ㉡: 체념적 한탄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내면적 정서와 대비되는 감정 표현을 통해 화자의 현실 인식을 담아내고 있다.
- ④ ㉣: 인간의 행위를 초자연적 존재와 관련지음으로써 바람직한 처신으로 이끌고 있다.
- ⑤ ㉣: 신성한 존재를 등장시킴으로써 갈등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꽃도 열매도, 그게 다 /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여

주말엔 /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녘나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빠리도 받쳐야겠다 / 그것들도 식군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나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여
- 이정록, 「의자」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이 고향인 줄도 모르면서
진 장대 휘둘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남도의 빈 겨울 하늘만 남으면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 주릴 때도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 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철없는 조카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사랑방 말쿠지*에 짚신 몇 죽 걸어 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 짚신 더러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한밤중 동네 개 킁킁 짖어 그 짚신 짚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느니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이렇게 등 따습게 비춰 주고 있지 않느냐.
- 송수권, 「까치밥」

*말쿠지: 물건을 걸기 위하여 벽 따위에 달아 두는 나무 갈고리.

(나)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28. (가)와 (나)를 묶어 시 낭송회를 하려고 할 때, 낭송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성현의 말씀에 담긴 교훈을 찾아서
-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
- ② 가슴 따뜻한 유년의 기억을 찾아서
- 어른이 되어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
- ③ 삶의 언저리에 있는 자연의 신비를 찾아서
-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지쳐 가고 있는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
- ④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 도시적 공간에서 벗어나 삶의 여유를 찾는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
- ⑤ 인생의 경험 속에 녹아 있는 삶의 자세를 찾아서
- 배려하고 의지하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

29. <보기>는 인터뷰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눔’의 실천을 자신의 몫이 줄어드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자발적이지 않은 나눔 상황에 놓여 아까움을 생색으로 대신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제 몫이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각박해짐에 따라 따뜻한 인정이 담긴 나눔을 선행의 실천으로만 평가하고는, 미담으로 포장해 세상에 알리기에 급급한 이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밭에 콩을 심을 때 콩 심을 자리에 콩을 세 알씩 뿌렸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알은 땅속의 벌레가 먹고, 또 한 알은 하늘의 새가 먹고, 마지막 한 알은 싹을 틔워 사람이 먹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전통적 공동체의 삶 속에는 생색내지 않는 공존의 철학이 마치 불문율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 ① ‘조카아이들’은 ‘까치밥’을 남기는 것을 자신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군.
- ②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된 할아버지의 ‘질신’은 제 몫이라는 개념이 담기지 않은 것이겠군.
- ③ 세 알의 콩알을 심던 사람들의 마음처럼 ‘까치밥’에는 불문율 같은 공존의 철학이 담겨 있겠군.
- ④ ‘까치밥’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화자의 배려에는 전통적 공동체에서 비롯된 삶의 태도가 배어 있겠군.
- ⑤ 아이들이 고향이 왜 고향인지 이해한다면 ‘까치밥’에 담긴 배려를 세상에 알려야 할 미담으로 포장하겠군.

30. <보기>는 ‘의자’를 시화한 또 다른 작품이다. (나)와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지금 어디메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웁니다.
그분을 위하여
목은 이 의자를 비워 드리지요.

지금 어디메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웁니다.
그분을 위하여
목은 의자를 비워 드리겠어요.

면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디메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웁니다.
그분을 위하여
목은 의자를 비워 드리겠습니다.

- 조병화, 「의자 7」

- ① (나)는 <보기>와 달리 ‘의자’에 대한 말을 듣는 표면적인 상대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나)는 <보기>와 달리 ‘의자’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물이 교감하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보기>는 (나)와 달리 ‘의자’를 비워 주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식을 담아내고 있다.
- ④ <보기>는 (나)와 달리 ‘의자’를 의인화하여 시적 대상에게 의자의 역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 ⑤ (나)와 <보기>는 모두 ‘의자’라는 일상적 소재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탈진 공터 언덕 위 푸른 풀이 덮이고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세 그루 갈라진 밑동에도 푸른 싹이 돋았다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안다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쁜 세월
때로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굽은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착지근한 혀, 항시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었다
흔들리며 보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땐 솟아오르고 싶었다 세차장 고무호스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 돼지 목 따는 동네의 더디고 나쁜 세월, 풀잎 아래 엎드려 숨죽이면 가슴엔 윤기 나는 석탄층(石炭層)이 깊었다
- 이성복, 「다시 봄이 왔다」

(나)
새벽 시내버스는 /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흑한일수록 /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엔 온 듯 /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3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계절적 배경에서 비롯된 현상의 묘사로 부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상반된 속성을 지닌 공간들의 모습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대상을 호명하는 방식의 표현을 활용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1인칭 복수형의 주어를 사용하여 화자 이외의 다른 이들도 시적 상황에 함께 처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호감을 느끼는 대상의 모습을, ㉡은 화자가 경이감을 느끼는 대상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② ㉠은 화자가 집착하는 세속적 가치를, ㉡은 화자가 현실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이상적 가치를 표상한다.
- ③ ㉠은 화자가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공간의 속성을, ㉡은 화자가 목격하고 있는 공간의 속성을 보여 준다.
- ④ ㉠은 화자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장애를, ㉡은 화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의 장애를 표상한다.
- ⑤ ㉠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은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여 준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70, 80년대를 거치며 한국 사회는 군부 정권의 주도하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었고 인간 소외와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가)와 (나)는 이렇게 시대적 아픔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의 시인들의 현실 인식과 삶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가)는 생기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는 불모의 세계를 그려 내면서,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한 채 권태롭게 살아가는 자아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서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 내기를 바라는 잠재된 욕망을 포착하고, 그 양상을 보여 준다. 한편 (나)는 서민들이 가난을 견뎌야 하고 비판과 저항의 행위가 용인되지 않는 냉혹한 세계를 보여 주면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조명한다. 그리고 그들의 고되지만 치열한 삶의 모습을 떠올리며 역설적으로 감동을 경험하는 화자의 정서적 반응을 그려 내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현실을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기 있는 삶을 보여 주는 ‘푸른 짝’과 달리 ‘우리’가 불모의 세계를 살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 ② (가)에서 화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누구나 안다’고 단언하는 데에서, ‘돼지 목 따는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겪는 시대적 아픔에 공감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군.
- ③ (가)에서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석탄층’에 비유하는 데에서,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 내기를 바라는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억눌려 있음이 드러나는군.
- ④ (나)에서 화자가 현실을 ‘엄동 혹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막막한 한숨’을 내쉬며 고되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가 처한, 냉혹한 시대 상황을 떠올렸기 때문이겠군.
- ⑤ (나)에서 화자가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본 광경에 ‘취한다’고 하는 데에서, 서민들의 치열한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역설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는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돌아가야지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얹어지고
 국화꽃 한두 송이 바람을 물들이면
 흩어졌던 영혼의 양 떼 모아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가서 한 생애 버려뒀던 빈집을 고쳐야지
 수십 년 누적된 병인을 찾아
 무너진 담을 쌓고 창을 바르고
 상한 가지 다듬어 등불 앞에 앉히면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내 생애 망가진 부분들이
 수목으로 떠오른다
 단비처럼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
 한때는 부서지는 열기로 날을 지새고
 이제는 수리하는 노고로 밤을 밝히는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의
 평안으로 온다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
 - 홍윤숙, 「가을 집 짓기」

(나)

서귀포 언덕 위 초가 한 채
 ㉡귀퉁이 고방을 얻어
 아고리와 발가락군*은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딱 찰,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게와 조개를 잡아먹으며 살았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 온 모래알이 버석거리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조개껍질처럼 입을 다물던 방,
 계를 삶아 먹은 게 미안해 계를 그리는 아고리와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군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
 방이 너무 좁아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다
 꿈속에서나 그림 속에서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복숭아는 마치 하늘의 것처럼 탐스러웠다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쉼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한 날 많았더라도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계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 질 때까지 놀았다
 계가 아이의 잠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물고기는 아고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바닷가,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란 걸
 아고리와 발가락군은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빈 조개껍질에 세 든 소라게처럼

- 나희덕, 「쉼이 보이는 방 - 이중섭의 방에 와서」

*아고리와 발가락군: 화가 이중섭과 그의 아내가 서로를 부르던 애칭.

3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과장된 표현을 통해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도치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가상의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특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다짐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35.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타인과의 소통을 경험하는 공간이고, ㉡은 시적 대상인 '아고리'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떠나와 그리워하는 공간이고, ㉡은 시적 대상인 '아고리'가 떠난 곳을 그리워하며 떠돌던 공간이다.
- ③ ㉠은 화자가 머물며 고뇌하는 속세의 공간이고, ㉡은 시적 대상인 '아고리'가 속세를 벗어나 머무르던 은둔의 공간이다.
- ④ ㉠은 화자가 억압적 상황을 견디는 시련의 공간이고, ㉡은 시적 대상인 '아고리'가 자유로움을 느끼던 희망의 공간이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의 관념을 투영한 내면 공간이고, ㉡은 시적 대상인 '아고리'가 가난 속에서 생계를 이어 가던 생활 공간이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인이 젊은 날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고뇌와 방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낸 작품이다. 시의 화자는 가을, 밤이라는 계절적, 시간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또한 지나온 삶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을 다독여, 본연의 자아가 지니고 있던 평안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과정을, 집을 고쳐 짓는 행위에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 집 짓기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참모습을 온전히 마주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숙에 이른다.

- ① '엷어지'기 시작한 '전나무 그늘'과 '국화꽃 한두 송이'가 환기하는 계절적 이미지는, 가을을 맞아 지난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② '돌아가야' 할 '빈집'을 '한 생애 버려뒀'다고 한 것은, 화자가 본연의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반성적 인식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무너진 담'이 고쳐져 '만월'의 충만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화자가 상처 입은 영혼을 다독임으로써 평안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는군.
- ④ '부서지는 열기'가 환기하는 뜨거운 이미지는, 집 짓기를 통해 본연의 자아를 회복하려는 화자의 치열한 노력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가을'이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참모습을 받아들임으로써 방황하던 과거를 극복하고 성숙에 이르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겠군.

3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중섭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으며, 6·25 전쟁의 발발로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에 잠시 정착하여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지만, 이듬해 일본에 건너가게 된 식구들과 이별한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다 간 그에게, 역설적으로 당시의 삶은 행복했던 마지막 시절로 남았다. [그림 1]은 밝은 색채로 꿈꾸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유화이다. 아이들이 새를 타고 하늘을 날며 북송아를 따는 평화로운 해변의 풍경은 지상 낙원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림 2]는 간결한 데생과 담채 기법으로 동심의 세계를 그려 내고 있다. 벌거숭이의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고 계에게 물리기도 하며 한데 뒤엉겨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림 3]은 은박지를 재료로 한 독창적 기법을 통해 가족과의 결합에 대한 희망을 담아내고 있다. (나)에는 이러한 그림들에서 시인이 떠올린 이중섭의 삶과 예술 세계에 관한 상념이 드러나 있다.



[그림 1] '서귀포의 환상' [그림 2] '두 아이와 물고기와의 계' [그림 3] '계와 물고기가 있는 가족'

- ① [그림 1]의 풍경에서 연상되는 공간을 고려할 때, (나)에서 '아이들이' '새를 타고 날아다니'는 풍경은 이중섭의 그림에 나타난 이상 세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② [그림 1]의 색채와 분위기를 고려할 때, (나)에서 '총소리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은 이중섭의 그림에 전란 중에 그가 꿈꾸었을 평화가 구현되어 있다는 시인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③ [그림 2]에 나타난 형상을 고려할 때, (나)에서 '계와 물고기가' '아이들과' 노는 장면은 이중섭이 그려 낸 동심의 세계를 생동감 있게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그림 3]에 담긴 이중섭의 소망을 고려할 때, (나)에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한 날'은 이중섭이 가족과의 재회를 바라며 외롭게 지내던 상황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그림 3]에 사용된 기법을 고려할 때, (나)에서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은 시인이 이중섭의 창작 방법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시적 대상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드러낸 것이겠군.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인 방에 호올로

대낮에 체경(體鏡)을 대하여 앉다.

슬픈 도시(都市)엔 일몰(日沒)이 오고

시계점(時計店) 지붕 위에 ㉡청동(靑銅) 비둘기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늘어진 고층(高層) 위에 서거이는 갈대밭

열없는 표목(標木) 되어 조으는 가등(街燈)
소리도 없이 모색(暮色)에 젖어

얽은 베옷에 바람이 차다.

마음 한구석에 벌레가 운다.

황혼을 좇아 네거리에 달음질치다.

모자도 없이 광장(廣場)에 서다.

- 김광균, 「광장」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퐁당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3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시상의 반전을 통해 시적 상황이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대립적 관계에 있는 시어들을 활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시행의 끝에 동일한 시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행동을 묘사하여 그 행동에 따르는 공간의 이동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하루 동안의 시간 변화를 환기하는 이미지를 통해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호올로' '앉'아 있는 공간으로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 '슬픈 도시'를 배경으로 '울었'던 소재로서, 화자가 느끼는 비애감과 조용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 화자가 '찾아가고 싶다'고 하는 장소로서, 화자가 미지의 대상에 대해 느끼는 호기심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 화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사물로서, 화자가 바라는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러워지'는 상황을 비유한 소재로서, 화자의 반성적 현실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나),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현대 도시는 익명성을 띤 개인들이 모인 공간으로, 개인들은 도시 문명의 질서 속에서 편리를 누리기도 하지만, 삶의 주체성을 잃고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다. (가)와 (나)는 이러한 도시의 삶에서 비롯된 자아의 정서적 반응을 다양한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1930년대에 창작된 (가)는, 황량하게 묘사된 도시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일제강점기 도시의 낯선 환경 속에 놓인 자아의 고독감과 방향 상실감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고도의 도시화가 이루어진 1990년대에 창작된 (나)는, 도시적 일상을 돌아보는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소모적이고 몰개성적인 삶에 대한 비판과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 ① (가)에서 '네거리'가 나 있는 '광장'에 멈춰 선 화자의 모습은, 도시의 낯선 환경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방향 상실감을 환기하는군.
- ② (나)에서 '시퍼런 무쇠 낮'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소모적이고 몰개성적인 도시적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이 거듭나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에서 '고층'의 건물이 늘어서 있는 모습과, (나)에서 '현대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은 익명성을 띤 채 살아가는 개인들이 모인 현대 도시 공간의 성격을 보여 주는군.
- ④ (가)에서 '바람'이 환기하는 차가운 이미지는 화자가 도시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상황을, (나)에서 '이글거리는 불'이 환기하는 뜨거운 이미지는 화자가 도시에서 편리를 누리는 상황을 함축하는군.
- ⑤ (가)에서 '모색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쓸쓸하게 묘사된 풍경과, (나)에서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라고 하는 화자의 말에는 도시 문명 속에서의 삶에 대한 자아의 정서적 반응이 투영되어 있군.